

	<b>인도네시아(자카르타) 사무소</b> <b>해외동향보고서</b>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담당자	하원정 소장
		일시	2025. 3

## CEPA Insight

- 무상급식 올인?... 프라보워, 예산 Rp 306조7천억 삭감에 각종 사업 취소
- 프라보워 “연내 쌀·옥수수 자급자족 가능”...실현은 미지수
- 인도네시아-한국, 제조업 분야 산업 4.0 가속화를 위한 협력 강화
- 부가가치세 인상 정책 철회
- Apple 인도네시아 투자 협의
- 2025년 금식월 라마단 시작은... 종교부 “3월1일” BRIN “3월 2일”
- 자카르타, 2025년 3월부터 THR 지급 감시

### ■ 무상급식 올인?... 프라보워, 예산 Rp 306조7천억 삭감에 각종 사업 취소

-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올해 306조7천억 루피아 예산 삭감을 지시하며 각 부처는 다양한 사업을 취소하고 있다. 특히, 공공사업부는 인프라 예산을 80% 삭감하고 도로와 교량 유지보수 사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과 연구개발(R&D) 예산도 줄어들 예정이다. 반면, 부가가치세 인상 취소로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예산을 100조 루피아 늘리기로 했다. 이 사업은 전국 초중고 학생 및 취약 계층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산 증액은 확대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전문가들은 무상급식 사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5. 2. 10.)

### ■ 프라보워 “연내 쌀·옥수수 자급자족 가능”...실현은 미지수

-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2025년 말까지 인도네시아가 쌀, 옥수수, 소금 등의 자급률을

100%로 달성해 더이상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내각에 제시한 목표가 2027년까지 식량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다행히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까지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는 100km<sup>2</sup> 규모의 농지를 새로 개간하고, 관개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가뭄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해 인도네시아는 100만 톤의 쌀을 인도에서 수입할 가능성도 있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5. 1. 26.)

## ■ 인도네시아-한국, 제조업 분야 산업 4.0 가속화를 위한 협력 강화

-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제조업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월 22일, 양국은 스마트 팩토리 등 제조업 디지털화 가속화를 목표로 협력 양해각서(MoA)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Kemenperin)는 "Making Indonesia 4.0"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이며,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번 협력은 인도네시아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5. 2. 3.)

## ■ 부가가치세 인상 정책 철회

-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12% 부가가치세 인상 정책(생필품 제외)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콤포스, 12.31). 프라보워 대통령은 관련 재무부 장관령을 12월 31일에 서명한 후, 이를 직접 발표하며 12% 인상은 사치품목으로 규정되는 상품과 서비스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프라보워 대통령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2개월 동안 1,600만 명에게 매달 10kg의 쌀을 지원하며, 전기요금 50% 지원도 예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노동 집약 산업 지원을 위한 신규 기계 구매 자금 조달에 대한 이자 비용 지원과 근로자 보험료 50%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차량과 주택 구매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도 계속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각처, 12.31, 자카르타글로브, 1.1)

## ■ Apple 인도네시아 투자 협의

- 1월 7일 진행된 인도네시아 정부와 Apple 과의 면담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AirTag(위치추적장치) 제조 공장 바탐 건설이 논의된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Agus Gumiwang 산업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AirTag 제조 공장의 경우 액세서리 제조 투자로 아이폰 16 인도네시아 내 유통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Agus 산업 장관은 Apple 경영진이 인도네시아 정부 요청보다 낮은 규모의 투자를 제안하였으며 당초 약속한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도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 Agus 장관은 Apple 측과의 목표 협상 완료 시점이 없다고 언급하며 아이폰16 뿐만 아니라 이후 출시 예정인모델 판매에 있어 인도네시아 시장이 중요하다면 Apple 측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에 빠른 결정 내려야 할 것이라 조언한다. 전문가들은 Apple이 베트남과 인도에서는 핸드폰 제조 공장을 설립 한 점을 비교하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Apple에게 관대하다는 인상 없앨 수 있도록 정부가 현재와 같이 과감하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한편,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저렴한 가격에 높은 품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Apple 공급망'에 들어갈 수 없는 수준임을 의미한다며 투자 유치에 있어 인도네시아가 경쟁력이 없음을 지적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Kompas 1.8)

## ■ 2025년 금식월 라마단 시작은... 종교부 "3월1일" BRIN "3월 2일"

- 2025년 라마단 시작일을 결정하는 초승달 관측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초승달 관측 방법은 라마단 시작일을 결정하는 초승달 관측에는 천문학적 계산(hisab)과 육안 관측(rukyah)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천문학자들은 천문학적 계산을 통해 초승달의 위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이슬람 교도들은 여전히 육안 관측을 통한 증명을 요구한다. 초승달은 날씨 조건에 따라 관측이 어려울 수 있으며, 황혼이나 구름에 가려져 관측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망원경과 이미지 처리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역별 관측 결과 차이로 인한 이견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1446년 라마단 시작에 대한 공식 결정은 2025년 2월 28일 자카르타에서 종교부가 개최하는 이스밋 회의(isbat)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천문학 전문가, 울라마(이슬람 학자) 및 이슬람 단체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5. 2. 28.)

## ■ 자카르타, 2025년 3월부터 THR 지급 감시

- 자카르타 주 정부는 2025년 3월부터 기업들의 종교절 상여금(THR) 지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하리 누그로호 자카르타 노동이주에너지청장은 르바란 2주 전부터 현장 감시를 실시하여 기업들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노동부는 THR 지급 기한 약 3주 전에 관련 회람(SE)을 발행한다. 이는 Idul Fitri를 앞두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노동이주에너지청은 3월 중 민원 접수처를 열어 THR 미지급 기업에 대한 조기 대응을 할 예정이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THR 분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감사 후 결정된다. 또한, 노동이주에너지청은 2025년 주 최저임금(UMP) 규정 준수 여부도 함께 감시할 예정이다. THR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과거 일부 기업들이 12월에 THR을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2025년에는 유사한 사례 발생 시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5. 2. 27.) 끝.

 <p>(출처 : 연합뉴스)</p>	 <p>(출처 : 한인포스트)</p>	 <p>(출처 : 한인포스트)</p>
<p>&lt;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2월 3일 동부 자카르타 뿔로가동 초등학교 무상 영양식(MBG) 프로그램 시행을 불시에 참관 사진: BPMI Setpres&gt;</p>	<p>&lt;Jokowi 대통령은 Prabowo Subianto 국방부 장관과 함께 중부 칼리만탄 주의 대규모 식량단지 개발을 논의&gt;</p>	<p>&lt;안디 리잘디 산업부 표준화 및 산업 서비스 정책국(BSKJI) 국장. 한-인니 산업 강화 협력 관련 연설&gt;</p>